학내기관 탐방

중 앙 도 서 관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서울대학교 교육 · 연구의 핵심 토대인 중앙도서관을 방문하였다. 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의 출발과 함께 시작된 '국립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학교의 성장, 장서량의 증가, 디지털 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큰 규모로 성장하였다. 김준성 선임연구원(글쓰기교실)은 도서관장으로 재임 중인 허남진 교수(철학과)를 만나 도서관의 현재 중점 사업,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 현황, 장서량의 변화,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 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서울대학교 중앙 도서관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여 특별히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허남진: 과거에는 도서관의 자료가 거의 단행본이고 도서관의 주 업무는 자료 보존이었습니다. 또한 수서 과정에서도 단순하게 자료를 수집 · 정리하여 대출하는 시스템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주요 업무들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전산화되어서 이용자가 책을 검색하고 이용하는 과정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장서들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전자저널, 웹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상으로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료 이용은 매우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디지털화되면서 원본을 접할 수 없고, 자료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고문서를 관리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서고를 위한 공간 확보가 가장 큰 문제들 중의 하나입니다.

과거에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장서량이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고 면적이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서 보유량이 약 250만권에 달하고 (물론 하버드 대학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실정이지만) 장서량의 증가 때문에 서고 면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 부족 때문에 서고 면적을 넓히려면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열람 공간을 줄여야 하지만 학생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생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외국에서 4천 석 이상의 열람 공간을 가진 도서관을 찾기 어렵습니다. 서울대 도서관도 독서실이 아니라 정보를 보존하고 찾아볼 수 있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과거와 비교할 때 학생들에게 도서관 이용을 위하여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의견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서울대학교 중앙 도서관의 전자저널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허남진: 구비하고 있는 전자저널의 종류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거의 세계 최정상급 수준입니다. 일본과 비교하여 확연히 앞서 있고 미국과 비교하여도 그렇게 뒤쳐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귀중본, 규장각에 보존되어 있는 고문서는 그 보존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매우 양호한 상태로 디지털화 되었기 때문에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바로 검색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쟈뷰(DjVu)'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림과 원문을 검색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고문서 분야는 다른 대학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문서의 경우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가정에서 프록시를 이용하여 전자저널을 열람할 수 있을 정도로 기반 시스템 구축이 우수합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전자 도서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허남진: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역시 예산 문제입니다. 그 동안 BK21 사업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도서 구입을 위한 일 년 예산이 50억입니다. 그중에서 75~80% 즉 약 40억 정도가 웹 데이터베이스 구독에 사용됩니다. 구독하고 있는 저널 중에서 약 85% 이상이 자연과학이나 이공계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구독에 사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파트의 저널이나 단행본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학 도서관의 이상적인 모습은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연구 중심의 도서관입니다. 연구 중심 대학 도서관의 서열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약 120위 정도입니다. 외국 상위권 대학의 경우 단행본 대 잡지의 비율은 대략 3대7 혹은 4대6 정도이다. 미국의 경우에 잡지의 비율이 상승하여 전체 자료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도 현재 잡지의 비율이 약 80%에 이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전자저널의 경우 계약 조건이 저널마다 각기 다릅니다. 또한 저널을 이용하는 수와 저널을 다운로드하는 횟수에 따라서 이용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전자저널의 구독료 인상은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구독 중이던 저널을 중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발생합니다. Science Direct 또는 Sci-Finder 같은 전자저널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이용료가 약 7천만 원입니다. 핵심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저널이기 때문에 단행본 형태로 출간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서관으로서는 예산 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하드카피본과 데이터베이스가 동시에 출간되는 경우 하드 카피본을 구입하는 경우에 약 20% 정도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드 카피본을 구입할 경우 서고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으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문과 계열의 경우에는 하드 카피본이 더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 e-journal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하드 카피와 내용이 같은 경우에 e-journal로 통일할 계획입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서울대학교 중앙 도서관이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과 도서관장 재임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사업은 무엇인가요?

허남진: 앞서 언급한 전자저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자 주력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행본의 비중을 20~25% 올리고 상대적으로 저널 비중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저널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 보충할 계획입니다. 단행본의 비중이 5% 정도만 늘어나도 상당한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단행본의 상당수를 국내 단행본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출간되는 단행본 서적을 거의 구비하는 즉 망라수서를 할 계획이고 수서 과정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학생이나 교수가 신청하는 책을 구입하였지만 앞으로는 외부의 도서 업체와 구내 서적 두 곳을 선정하여 무협지와 환타지류를 제외한 국내에서 출간되는 신간들을 거의 모두 수집할 계획입니다. 이런 변화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신간이 출간되면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즉 수서에서 장비까지 약 20번 정도의 과정을 거쳤지만, 학생들이 도서 신청을 하기도 전에 출간 후 2주 정도 후면 서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서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여전히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있지만 이상적인 방법으로 신간과 구간을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4층 일부를 신간 코너로 설치하여 그곳에는 신간만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열람을 함께할 수 있는 서고를 구비하여 대출기간을 짧게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나의 전공이 한국학이기 때문에 서양서를 등한시한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내 학술 서적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디서도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서의 경우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를 이용한 상호대차(interlibrary loan)

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미국의 경우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시스템이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는데 한국 대학은 어떠한가요?

허남진: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전국 대학 간의 상호대차 시스템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타 대학 도서관에서 서울대학교의 상호대차 시스템을 통해 약 2천권 정도를 대출하여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서울대학에서 국내 대학에 도서 대출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대학은 일본의 국회도서관, 일본도서관연합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미국 도서관과 연계되어 있는 상호대차나 복사 등의 서비스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 때문에 잠시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

교수학습개발센터: 미국의 경우에 인근 시민들에게도 대학 도서관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사안에 대해서 서울대학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허남진: 사실상 학교 외부인에게 개방은 되어 있지만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대출은 불가능 하여도 열람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몇 해 전 학교 측에서 이용자를 제한하는 문제를 언급하였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경우를 볼 때 우리 대학처럼 개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봅니다. 서울대는 도서관 본연의 업무에 비교할 때 상당 부분을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회계 문제만 해결되면 예를 들어 서울대 도서관 회원을 모집해서 일정의 이용료를 받거나 도서를 대출할 때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여러 가지 대안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도서관장의 입장에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허남진: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도서관장의 업무를 상당히 고상한 직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고상하게 책만 보고 이에 대한 관리만 하는 직책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장에 취임한 후 줄곧 예산에 관련된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역시 학교의 예산으로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 본연의 업무 이외에 직원 고용, 직원 처우에 관한 미묘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산 문제 이외에도 사서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의 경우 도서관에서 '전문사서' 제도를 도입하여 그에 따른 합당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 풍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료 구입비만 보더라도 하버드 대학의 7분의 1, 동경대학의 4분의 1 수준이니 그 정도의 예산 편성으로 우수 도서관 조성은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정부 예산 또한 매우 부족합니다. 그나마 기성회비에서 상당 부분의 예산을 도서관에 편성하고 있고, 한국 화약의 기부금 250억에서 파생되는 이율로 도서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회성 예산 확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지속적인 예산 확보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전국 대학 도서관에 균등한 예산 편성을 계획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집중과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대안으로 정부에서 이공계 학술 저널에 대해 내셔널 라이선스를 부여해 주면 도서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한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당부입니다.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도서관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책 구입을 요청할 당시에는 매우 시급한 상황인 것처럼 서두르지만 막상 책이 구비 되면 한번도 이용되지 않은 도서들이 많습니다. 책 구입을 요청할 때 학생들의 지각 있는 판단이 요구됩니다. 학생들은 도서 구입을 요청할 때 서울대학교 도서관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그 위상에 적합한 도서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간혹 환타지나 무협 소설처럼 학교 위상에 걸맞지 않는 도서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단순한 흥미 위주나 일회성 도서의

신청은 가급적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소설 · 시집류의 선정이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도서 선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문학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도서들만을 선별하는 절차를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서관을 청결하게 이용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대자보나 게시물은 정해진 공간에만 부착하고 학생들이 솔선하여 도서관 이용에 모범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제기하는 문제들 중 가장 큰 문제는 시험 기간 중 발생하는 열람석 부족입니다. 그러나 도서관을 단순한 열람실로 생각하고 이용하려는 학생들의 인식부터 개선되어야 합니다. 도서관은 점차적으로 서가 공간을 위주로 우선 배치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도서관을 열람실이나 고시원처럼 이용하는 상황은 가장 큰 문제이지만 쉽게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 문제입니다. 물론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전자저널이나 웹 데이터베이스 이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전자저널의 경우 접속 및 자료 다운로드 횟수가 다른 대학에 비해 현저하게 높습니다. 약 2.5배 정도 높은 이용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동일한 이용료를 지불하는데 다른 대학에 비해 이용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널 공급 업체에서 이용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활발한 이용은 장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자료를 무조건 다운로드하는 것은 학생 스스로 분별 있게 자제해야 합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철학과 교수로서 도서관 관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허남진: 도서관장직은 전혀 예상치 못한 채 맡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지만 앞서 언급하였 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사서 체제 기반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도서관학과나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학과의 교수가 도서관장직을 겸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실정이고 선진국의 경우에 전문사서가 도서관장을 맡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우나 사회

보장 제도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도서관장은 대학 본부와 도서관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전문사서가 부관장이 되어 도서관 실무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조 체제 기반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서는 도서관 전문 인력으로 양성되어야 하며, 그들은 문헌 정보학 이외의 부전공 분야를 가진 전문사서로서 사서 고유의 업무와 도서관 관리 능력을 동시에 구비한 전문가여야 합니다. 또한 정보지원실에서 참고 봉사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사서가 양성되어야 합니다. 양질의 자료를 취사선택하는 데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사서 시스템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장 재임 기간 동안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활용으로 교직원, 학생 등 모든 이용자들에게 보다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